



서른한번째 이야기

오직 믿음으로

[22 부산 OBA 후기]

안녕하세요.

새날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영희 권사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과정으로 인도해주시고 수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직장 업무를 마치고 오셔서 열정적으로 인도해주신 두 분의 인도자님과 함께 세미나에 참여한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 자신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한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말씀의 갈급함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교회 신청란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세미나 형식이 생소하고 어렵긴 했지만,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미나 시간을 통해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유대 율법학자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을 때의 일들을 알아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셨고 저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세미나 시간을 통해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복음에만 전념한 바울을 보면서 믿음은 머리뿐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매일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터전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며 적용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중 새롭게 케어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적장애가 있지만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불편한 어르신들을 볼 때면 무엇이든 베풀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성령께서 주셨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다시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다고 밝은 모습으로 말씀하셨을 때 저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구나 하는 감동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가장 감동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특히 제 안의 육이 살아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저는 죄에 대해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홍영희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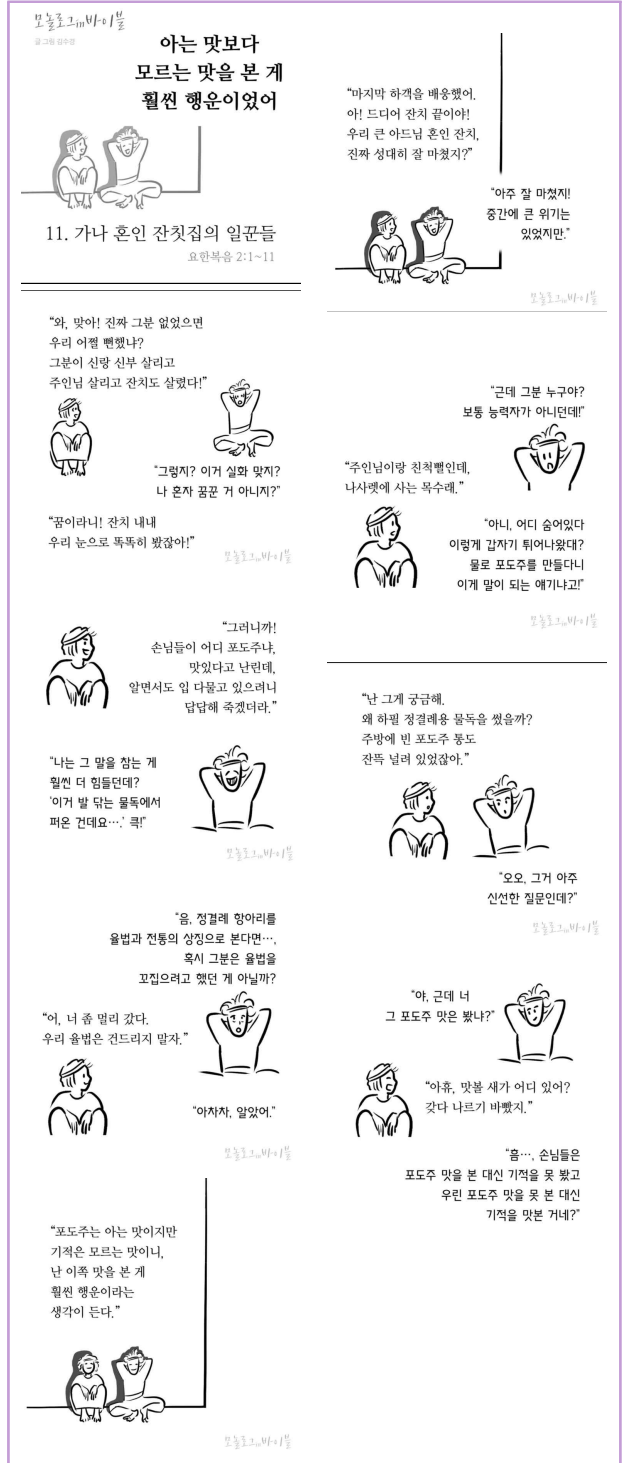
부산 새날교회에서 예배하며, 기도의 집 ‘필그림’ 찬양과 매주 토요일 오전 찬양을 섬기고 있다. 가족은 남편, 아들, 딸이 있다. 아들은 서울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직장 다니고 있으며, 딸은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정리 최경선 편집 최선]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쫓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발3:14).”
2. 11월 26일(토) 2022년도 BEE Korea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BEE Korea를 통해 주신 은혜와 사역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12월 5일(월) 2022년 Blessing BEE Korea! 서빙고 두란노홀 pm7:00-9:30에 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와 축복의 자리에 BEE 가족을 초대합니다.



4. BEE 토요 기도모임 예배를 함께 섬길 팀원 모집! 기도 테이블 식구, 순식구 중에서 BEE를 하신 분, BEE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토요기도 모임 참석자 중(예정 포함)에서 Singer, 인도자 모집합니다.